



극과 극 野-與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2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왼쪽)가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총회(오른쪽)에 참석한 의원들은 내내 침뚫힌 표정이었다. /연합뉴스

# 秋 “바지 대통령 처음…靑비서진 전면 교체해야”

<미애>

文 “거국중립 내각 구성을”…安 “구국운동 해야 할 사태”

2野 인적 쇄신 요구 등 총공세…탄핵·하야 발언엔 신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26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고리로 박근혜 정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이나 ‘하야’ 등 급진적 목소리에 거리감을 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극단적 카드를 선불리 꺼냈다가는 자칫 정치적 역풍을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기류로 분석된다. 야당이 앞서가지 않더라도 성난 민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서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특검안을 추진했다.

추미애 대표는 의총 인사말에서 “바지 사장은 많이 들어봤는데 바지 대통령은 처음 들어봤다면서 외국에 나가기 참피하

다는 말이 나온다”며 “최순실 수렴정정 정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국정을 무지자가 농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비서진도 전면교체하고 특검을 받아야 한다. 범죄가 드러나면 일벌 백계하는 데 있어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거국중립 내각을 구성하고, 스스로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총체적 국정실태는 청와대 참모진의 완전한 개편, 총리가 물러나고 인적 쇄신을 하는 것으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에서도 대통령의 탈당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은 정파

적 위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두 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비판이 과열돼 자칫 “무책임한 정치공격”이라는 비난에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두 야당 지도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탄핵이나 하야 등에 대해서는 일절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고 야권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 통치 권한을 사비비교주의 딸에 넘긴 것은 대통령임을 부인한 것”이라며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은 하야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원내 핵심관계자는 “탄핵 주장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탄핵을 주도한다면 대통령 공백 사태로 인한 혼란 등의 책임도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박근혜,

최소한의 개념이라도 있다면 자결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낸 것을 언급하며 “우리 당에서는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정배 전 대표도 입장자료에서 “너무 감정적으로만 대할 문제가 아니다. 탄핵은 국가적인 위기이자 비극이다. 그런 만큼 최후 수단이 돼야 하고, 가능할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전 대표는 최순실씨 파문에 대해 “구국운동을 해야 할 정도의 사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창원대학교를 방문한 안 전 대표는 최해범 총장 등 보직 교수들과 만나 “매일매일 민기 힘든 일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민심이 등을 돌리면서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이미 식물 정부가 된 상태”라며 “일단 상황을 주시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국민의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安 만난 JP “성공 돕겠다”

“潘, 생각대로는 어려울 것”

김종필 전 총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거취와 관련, “반 총장이 유엔에서 이제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귀국하더라도 지금 생각한 대로는 어려울 수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전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5일 안철수 국민 의당 전 대표,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서울 한 호텔에서 만난 회동을 가졌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대통령이 잔여 임기를 성공해야 하는데 사정이 여의지 않아 참 걱정이 된다. 안 전 대표가 잘해야 된다”며 “나도 멀리서나마 안 전 대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돕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총리는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전 대표가 대통령감이나를 묻는 말에 “그래도 현 정당을 이끄는 책임자로서는 참 괜찮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반기문-안철수 연대설에 대해 “반 총장은 와 봐야 안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순실 의혹”이 부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부적절하고 그런 말보다는 대통령이 그렇게 힘이 빠지면 나라가 갈판난다”라며 “대통령을 좀 도와주시요”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총리)이런 정말 시국에 희망을 걸 곳은 국민의당이라고도 하겠다. 그래서 중심 잡고 잘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임동욱기자 tuim@

## ‘우병우 고발’ 여야 만장일치 의결

국회 운영위 회의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안건을 상정한 뒤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전원이 ‘이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가결을 선언했다.

우 수석은 지난달 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및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국감 기관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

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른바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국회 위증 혐의로 추가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 비서실장의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진술 여부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니 여야 간사가 협의를 진행해 달라”면서 “11월 2일 예산안 심사에 이 비서실장 등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증죄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게 온당하다”고 정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박영선, 2년전 문건유출 의혹 지적

운영위 회의서 “이재만, 서류 들고 밤에 어디 가나” 추궁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년 전 국회에서도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 의혹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4년 7월7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향해 청와대 서류를 갖고 외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속기록에서 박 의원은 “이 총무비서관이 밤에 외출을 자주 한다고 들었고, 목격자도 있더라. 왜 밤에 자주 외출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비서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박 의원은 다시 “얘기를 들었다. 서류를 잔뜩

써두고 밤에 외출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더라. 그것도 자주 (외출했다고 한다)”라고 따졌다.

이에 이 비서관은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외출한다기보다는 청와대에서 집으로 갈 때 체계(직업)하다 만 서류라든지, 집에서 보기 위한 자료들을 가지고 가는 수는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번갈아 서류를 들고서 어디론가 간다는 내용”이라며 “그들이 서류를 들고 식당이 있는 강남의 건물로 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거기 최순실씨네”라고 얘기하더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이정현 리더십’ 시험대

국정농단 사태 수습·개헌 정국 갈림길  
친박계 침묵 속 비박 비대위 전환 요구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26일로 취임 79일을 맞은 이 대표가 뜻하지 않은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으로 곤경에 빠졌다. 비박(非박근혜)계 일부와 원외 집룡들 사이에서는 “당을 서둘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군인 친박(親박근혜)계는 대체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남경필 경기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NS) 계정을 통해 “국민의 마음속에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 리더십의 공백은 국가적 위기”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리더십을 회복시키는 최소한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비서실장과 우병우 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을 모두 경질하고 빠르게 새 진용을 갖추는 한편, 새누리당 역시 하루라도 빨리 비대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박계 이종구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의 친박 지도부가 너무 청와대를 추종한다”며 “필요하다고 하면 사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이처럼 현 지도부를 압박하는 것은 이 체제로 내년 대선을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이 새누리당의 현재 문제다. 청와대발 핵폭탄급 약재 앞에서 어느 누구도 대안을 내놓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일단 이날 오전 긴급최고위원회의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박 대통령에게 청와대 수석 참모진과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리더십 시험대에 섰다”며 “친박계 대표가 될지,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구세주 대표가 될지 본인의 판단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